

# 천경자 화백 '예술 혼' 고흥의 문화유산 삼겠다

자치CEO

공영민  
고흥군수



1924년 11월 11일 고흥에서 태어난 한국 미술의 거장,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전시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의 삶과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가 열리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고흥의 예술적 가치와 천경자 화백의 깊이를 담은 특별한 순간을 제공한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인 '탱고가 흐르는 황혼', '정, 길레 언니II' 등을 포함한 29점의 채색화와 23점의 드로잉, 6점의 화선지에 먹, 102점의 아카이브 등 총 160점이 공개된다. 이 전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아카이브들을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중요한 기회로,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고흥아트센터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에서 느껴지는 고흥의 아름다

운 자연과 풍경을 연관 짓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볼 수 있고, 또한, 청년 작가들이 천경자 화백의 화풍을 재해석한 채색화 82점이 전시되어, 색다른 시각에서 화백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념전시의 특별한 점은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교수가 전시 총감독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김정희 교수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미술을 가르친 서양화가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김 교수는 천경자 화백의 화실에서 자라면서 화백의 작품과 관련된 풍부한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덕분에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함께, 관람객들이 작품 속 숨은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컵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의 참여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유품들이 첫 선보인다. 천경자 화백의 육성 녹음, 비디오 영상, 친필 편지 등이 전시돼 그의 생애와 예술적 여정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흥은 이번 기념전시를 계기로 천경자 화백을 고흥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가는 복원해 화백의 작품과 생애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백이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펼쳤던 공간 인근 주택도 매입해 천경자 화백의 화풍을 따르는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군은 이미 고흥의 구도심과 화백의 생가를 연결하는 거리에는 '천경자 예술길'을 조성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천경자 화백의 예술적 유산을 고흥의 문화적 자산으로 삼아, 그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기념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이 아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삶과 그가 창조한 예술 세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천경자 화백의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그가 남긴 미술적 유산이 한국 미술사, 나아가 세계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되새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고흥에서 열린 이번 전시가 천경자 화백의 예술을 재조명하고, 그의 고향 고흥이 그를 기리는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천경자 화백의 예술 세계는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날에도 여전히 강렬한 생명력을 발산하며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

## 독자투고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4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청소년기 처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과정, 그리고 재수,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신과의 기나긴 인고의 시간과 싸우며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시간이 이제 모두 지나갔다. 누군가는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며, 또 누군가는 과도한 긴장 속에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공부의 결과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시험 성적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고교생 대다수가 한 번쯤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지 수능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 인양 목숨을 건다.

## 수능 끝, 이제 성숙한 성인이 되는 시간

수능성적이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수능시험을 망했다고 느낀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가 매년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접하곤 한다.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어른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불행한 방송뉴스가 없길 기원한다.

매년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큰 산과 문턱을 넘었다고 느끼며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강해진다. 입시 과정에서 느꼈던 과도한 압박감이 풀리고 교육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분증을 위조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유해업소를 출입한다거나, 음주와

담배 구매 또는 불법 음란물(딤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수능 이후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능이 끝났다고 분위기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 당국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사 운영에 매진해야 하겠다. 수능시험 종료 1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곽현태 (고흥경찰 점령파출소장 경감)



에세이 | 한정규 문학평론가

# 공중도덕을 지키는 건 자신을 위한 일

당신 가끔 보면 공중도덕 아랑곳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점 잘못된 거다. 그것도 크게.

당신, 내 친구 맞지? 당신이나 나 어디 가든 나이가 많다면 쫄대 그런 말 듣는 것 자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일세. 나이 값 하거나. 친구라서 하는 말일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사는 곳 가까이를 가고 싶지 않는다. 그 말 듣지 못했다. 아이나 어른 여자나 남자할 것 없이 당신이 사는 집 가까이를 지나려면 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보기 싫기도 하지만 악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린다고 말들을 하는데 알겠나?

그 뿐만 아닐세. 여름엔 파리며 모기가 들끓어 좋지 못한 병원균이 번져 건강을 해친다는 것도 생각하게나.

자네 좋아서 그렇게 해 놓고 사는지 모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중도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친구야.

당신이 주택가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조금만 주의를 해 준다면 우리 마을 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 틀림없네.

서로 공중도덕을 지키고 공공장소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침을 뱉는다는 등 공중질서를 지킨다면 보다 쾌적한 환경과 위생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아닌가?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 사람의 기본 됴됨이이자 인격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공중

도덕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며 사람의 언행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쯤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기적인 사람은 공중도덕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다.

수해 전 당신 고생했던 일 기억나지 않나? 하수 또는 공장 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 물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에 걸려 일 년이 넘도록 피부과 병원을 다니며 고생했던 일 그때 당신 얼굴이며 몸 곳곳 정말 보기 싫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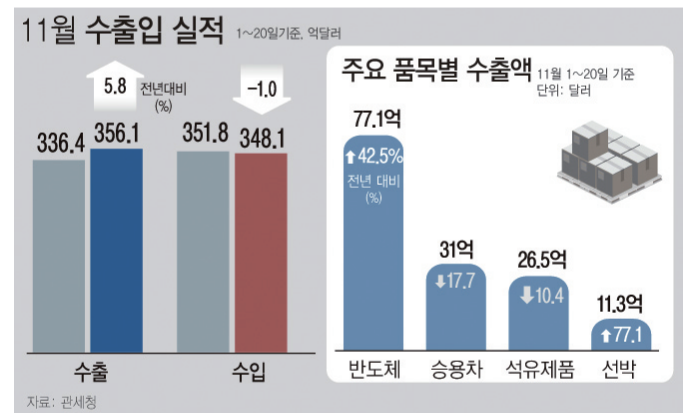
행여 당신이 앓고 있는 피부병 옮길까 봐 당신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피했다는 것 알았었을 텐데 잊었나?

이제 당신이나 나 세월 적지 않게 먹어 삼켰잖아, 공중도덕을 지키며 좋은 일 하는데 앞장서면 안 되겠나? 나하고 그렇게 하게?

결국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 그 누구를 위하는 것 아니야. 당신 가족과 당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네.

어떤 경우도 공중도덕 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알겠는가? 친구야! 솔직히 말해 당신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보다 많은 활동을 했었잖아? 그랬던 당신이 요즘 왜? 그런 행동을? 공중도덕 같은 것 아랑곳 하지 않은 못된 사람으로.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북교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